

## 인도 독립운동가 R. B. 보스와 조선\*

— ‘간(間)-제국’적 시점에서 반식민지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미즈타니 사토시\*\*

(심희찬 역)\*\*\*

\* 영국제국사를 전공한 필자가 식민지조선의 역사에 관한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도시샤대학에 거점을 둔 연구 그룹 DOSC(Doshisha Studies in Colonialism)의 조선사 연구자들, 특히 이타카기 류타(板垣竜太), 오가와라 히로유키(小川原宏幸), 홍종욱, 오인제, 니시무라 나오토(西村尚登), 모리타 치에(森田智恵) 선생님 등의 조언과 협력 덕택임을 밝혀둔다. 도시샤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에 재학(2013년 당시) 중이었던 고영진 선생님은 한국어 사료의 독해를 도와주었다. 고베대학 가와시마 마코토(河島真)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수집, 보관하던 잡지 『국유』(国維)의 열람을 허락해주었다. 2018년 12월 7일에 열린 국제학술회의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주권·민족·지역질서’에서 필자에게 발표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서울대학교 홍종욱 선생님이었다. 고려대학교 이형식 선생님은 당일 회의에서 귀중한 의견을 주셨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물론 이 글의 오류는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이 연구는 JSPS 과학연구비 JP15K02966, JP16H03501, JP25244025의 지원을 받았다.

\*\* 水谷智,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글로벌지역문화학부 교수

\*\*\* 원광대학교 HK 연구교수

주제어: 간-제국(間-帝國), 반식민주의, 인도, 조선, 일본, 영국  
Trans-Imperial, Anti-Colonialism, India, Korea, Japan, Britain

## [초 록]

영령 인도에서 영국인총독 암살미수사건에 관여했으며 일본제국에 망명했던 독립운동가 R. B. 보스(1886-1945)는 1934년 5월 식민지조선에 건너갔다. 경성에 일주일동안 머물면서 보스는 총독을 비롯한 일본인 고관들에게 연일 접대를 받았으며, 거기서 만난 조선인들을 일본에 대한 저항을 그만두고 협력하라며 설득했다. 영국제국에서 반식민지주의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 어째서 일본제국의 피지배자에게는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일까? 이 <모순>을 검토하는 일은 식민지주의 및 그 저항을 살펴보는 역사학적 작업이 된다. 지배를 다루건, 저항을 다루건 지금까지 식민지주의에 관한 역사연구는 소여의 일정한 제국 공간 안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성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종래의 방법론을 가지고는 1934년 경성에서 보여준 보스의 언동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서로 다른 제국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식민지주의와 그 저항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간-제국사>(trans-imperial history)의 시점이 필요하다. 이 글은 보스가 보여준 <모순>을 검토하고 간-제국적 시점에서 영국제국과 일본제국의 반식민지주의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 1. 들어가며

1934년 5월 인도의 한 독립운동가가 일본 조선통치의 중심지였던 경성을 찾았다. 영국령 인도 벵갈에서 태어난 무장투쟁계열 독립운동가이자 1912년 델리에서 하딩(Charles Hardinge)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던 라스 비하리 보스(Rash Behari Bose, 1886-1945)였다. 암살은 미수에 그쳤지만 식민지정부의 추적을 받게 된 보스는 1915년 일본으로 망명, 일본인 여성 소마 도시코(相馬俊子)와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았고 1923년에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그림 1] (좌) 1934년 5월(날짜는 불명) 경성에서 찍은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보스, 세 번째 인물은 지인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 오른쪽 끝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이케다 기요시(池田清). (우) 1912년 보스의 영국총독 암살 사건을 그린 회화.

\* (좌) 출처: 『라스 비하리 보스 관계자료』(ラース・ビハーリー・ボース関係資料, 대동문화대학 (大東文化大學) 60주년 기념도서관 소장, BS/289,2/B66/[7], 1212816781 126, 이하 『관계자료』로 약칭).

\* (우) 출처: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Lord Hardinge, Viceroy of India (colour litho), French School (20th century)/Private Collection/© Look and Learn/Bridgeman Images.

식민지 지배의 최고책임자인 총독암살을 기도했다는 점에서 보스는 1909년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지만 1934년 일본인 지인과 경성을 찾았던 보스가 총독에게 폭탄을 던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총독을 비롯한 일본인 고관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접대를 받았으며, 조선인들에게는 일본에 저항하지 말고 협력할 것을 설득했다.

영국제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지주의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어쩌서 제국일본의 피지배자들에게는 다른 태도를 취했을까? 이 <모순>을 묻는 일은 식민지주의와 저항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위한 역사학적 재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식민지주의를 다룬 역사연구는 — 지배를 다루건

저항을 다루건 — 어떤 소여의 제국 공간 내부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성에 주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이러한 종래의 방식으로는 1934년 경성에서 보여준 보스의 언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제국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식민지주의와 저항의 역사를 분석하는 <간(間)-제국사>(trans-imperial history)의 시점이 필요하다.<sup>1)</sup> 이 글에서는 보스가 보여준 <모순>의 이유를 해명하고, 간-제국적 시점에 입각하여 영국제국과 일본제국의 반식민지주의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 2. 일본과 조선의 범아시아주의 및 그 상극

### 2.1. 조선의 저항적 민족주의와 인도독립운동

1919년 3·1운동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에서는 민족적 저항의 형태가 모색되었고, 같은 시기 영국제국에서 전개되었던 인도독립운동이 하나의 모델로 여겨졌다. 가령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의 ‘스와 데시’(국산품 애용) 운동은 반식민지주의운동의 구체적 방책으로 주목받았고, 1922년부터 23년에 걸쳐 조선 언론계에는 간디의 운동을 다루는 기사가 대량으로 등장했다.<sup>2)</sup> 조선의 저항적 민족주의에 준 영향을 고려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한명의 인도인으로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를 들 수 있다. 1929년 4월 대표적 민족지 『동아일보』에 실린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Lamp of the East)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1) ‘간-제국사’에 관해서는 미즈타니 사토시(2018), 「『間-帝國史trans-imperial history』論」(『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日本植民地研究会編, 岩波書店, pp. 218-227) 참조.

2) Michael Robinson (2007),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 63-64.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는 시가 되었다.<sup>3)</sup> 이처럼 인도독립운동이 조선에 끼치는 간-제국적 영향을 경계한 조선총독부는 언론통제의 칼을 꺼내 든다. 조선총독부의 검열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조선의 민족적 출판물에 보이는 ‘스와데시’에 관한 언급 역시 검열의 그물망에 걸려들게 되었다.<sup>4)</sup> 1929년 말부터 이듬해 상반기에 걸쳐서는 ‘스와데시’는 물론 간디의 운동 및 사상 전반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sup>5)</sup> 유명한 조선의 독립운동가 함석헌이 타고르의 대표작 중 하나인 「기탄 잘리」를 인용해서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역시 1934년 처분의 쓰라림을 맛보았다.<sup>6)</sup>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검열기록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저항적 민족운동을 항일의 모델 혹은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 범아시아주의적 측면이 조선의 저항적 민족주의에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3·1운동을 탄압한 조선총독부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지배의 형태를 바꾸는 한편,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등 조선어 매체의 발간을 허가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매체들은 아시아 ‘약소민족들’의 반식민지운동을 전달하는 동시에 피지배자의 저항이 지닌 보편적 의미를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통해 암암리에 일본의 지배에 대한 민족운동을 고취시켰고, 조선총독부의 신경은 날카로워져갔다. 간디나 타고르처럼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저명인들을

3) Satoshi Mizutani (2015), “Anti-Colonialism and the Contested Politics of Comparison: Rabindranath Tagore, Rash Behari Bose and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in the inter-war period”, *Journal of Colonialism and Colonial History* 16 (1).

4) 가령 1928년 10월 4일 간디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의 물산을 장려하지”고 주장한 잡지 『자활』(自活)의 기사가 압류처분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1928), 『조선출판경찰월보』 2.

5) 『근우』(權友)에 실린 「인도의 민족운동」이라는 기사는 1919년 영국의 특별치안유지법 제정이 “간디를 분개하게 했고 인도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구절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1930), 『조선출판경찰월보』 17.

6) Satoshi Mizutani (2015).

배출한 인도의 반식민지주의운동은 특히 위협시되었으며, 검열관들의 경계 또한 더욱 삼엄해져갔다.

## 2.2. R. B. 보스의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와 ‘조선문제’

망명지 일본에서 식민지주의에 대한 저항을 모색했던 인도의 독립운동가 보스의 발판이 되어준 것도 범아시아주의였다. 다만 보스의 범아시아주의는 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저항적 연대를 호소하면서도 일본이라는 피지배국이 아닌 식민지 보유국을 중심으로 구미제국에 대항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조선인의 범아시아주의와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인 범아시아주의자 및 보스의 주장을 <일본적 범아시아주의>, 항일에 근거한 조선인의 주장을 <조선적 범아시아주의>로 구별할 것이다.)

범아시아주의는 지역, 시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기에 그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굳이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19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지역 대부분이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전락해가는 상황에서 각 아시아민족이 반제국주의적 연대를 통해 구미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모색하는 사상이나 운동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에 한정하는 경우, 조선인의 저항적 민족주의에 부과된 가장 절박한 과제는 같은 아시아의 이웃인 일



[그림 2] R. B. 보스.

\* 출처: 『관계자료』, BS/289.2/B66/[6], 1212- 816773 002).

7) 이 두 개념은 필자의 독자적인 분석용어로서 역사적 용어는 아니다.

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항일에 투신한 조선인들 사이에 간-제국적 범아시아주의의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적 범아시아주의>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아시아민족들의 반식민지주의 투쟁을 지향했다. 반제국주의적 아시아연대라는 범아시아주의의 기본적 성격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범아시아주의의 대립·경합 구도는 특히 인도독립운동에 관한 입장 차이에 잘 드러난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예로 들면서 일본에 대한 반식민지주의운동을 정당화하던 조선인들은 일본인 범아시아주의자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인도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지원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는 조선의 독립운동가가 간디에 비견되는 일에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한 간디주의자라면 영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일본에 협력하라는 주장을 펼쳤다.<sup>8)</sup> 오카와와 가까운 관계였으며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자의 상징으로 여겨진 보스 역시 조선적 범아시아주의가 제기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26년 8월 나가사키(長崎)에서 열린 전아시아민족회의를 통해 노골적으로 표면화한다.

8월 1일부터 3일간 열린 전아시아민족회의를 주최한 것은 일본의 전아세아협회와 중국의 아세아민족대동맹이었다. 개최국 일본을 비롯하여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대표들이 참가했다. 서구열강의 식민지화에 대해 아시아 민족의 단결과 공존을 내세웠으나 그 전제가 된 것은 일본의 지도적 역할이었다. 일본인 범아시아주의자들과 긴밀한 교류를 맺고 있던 보스가 의장의 중책을 맡았는데, 일본중심주의에 대한 이의가 조선적 범아시아주의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조선의 민족지는 같은 ‘아시아인’인 조선인 대표를 초청하지 않은

8) 大川周明(1931), 「印度国民運動の由来」, 『月刊日本』(인용은 大川周明全集刊行會(1962), 『大川周明全集』 2, pp. 508-530).

주최 측을 비판하고 있었다.<sup>9)</sup> 가령 『동아일보』는 7월 21일자 사설을 통해 회의의 슬로건인 범아시아주의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문제를 등한시 하는 기만에 빠져있다고 비난했다.<sup>10)</sup> 이를 의식한 주최 측은 회의 직전인 7월 26일 박춘금과 이기동을 조선인 대표로 발표했다. 하지만 전형적인 ‘친일파’로 간주되던 이들 두 명의 재일조선인을 전아세아협회가 추천한 일은 오히려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같은 날 『조선일보』는 박춘금과 이기동을 “제국주의의 왜소한 괴뢰요, 안으로는 조선인 대중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그 체면을 더럽히는” 자들로 규정하면서 일본 측 인선을 신랄하게 비난했다.<sup>11)</sup>

회의가 시작된 이후에도 조선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혼란은 그치지 않았다. 회의 도중 일본의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조선독립을 호소하는 자가 나타났다. 며칠 뒤 회의를 보도한 『중외상업신보』의 기사에 의하면 “회의 중반 ‘조선독립을 제의하고 싶다’는 자가 나왔다. 주최 측도 어찌 손쓸 도리가 없었고 ‘대표로 인정하라’, ‘인정하지 말라’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한다.<sup>12)</sup> 이에 의장을 맡았던 보스가 중재에 나섰다. “조선인 대표 … 와의 교섭이 문제가 되었을 때 중간에서 계속 조정해 노력한 것이 인도인 보스였다. … 이번 회의에서 가장 활약한 것은 보스였다.”<sup>13)</sup> 1926년에 열린 전아시아민족회의는 보스에게는 국제적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였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조선적 범아시아주의가 존재

9) 水野直樹(1994), 「1920年代日本・朝鮮・中国におけるアジア認識の一断面: アジア民族会議をめぐる三国の論調」, 古屋哲夫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緑蔭書房, pp. 509-548, pp. 525-526.

10) 水野直樹(1994), p. 527.

11) 水野直樹(1994), p. 528.

12) 「アジア民族会議の内輪話(中)」, 『中外商業新報』, 1926年 8月 15日(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中外商業新報』 人種問題(2-049)).

13) 「アジア民族会議の内輪話(下)」, 『中外商業新報』, 1926年 8月 16日(神戸大学経済経営研究所 新聞記事文庫 『中外商業新報』 人種問題(2-049)).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추진하던 타입과는 융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아시아민족회의에서 드러난 조선문제에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조선총독부도 관여하고 있었다. 회의 전에 조선인 대표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단체가 경성에서 의견교환을 위한 회합을 열려고 했지만 총독부는 이를 금지했다. 앞서 본 7월 21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린 것이었다.<sup>14)</sup> 조선총독부는 조선적 범아시아주의를 경계하고 억압했다. 총독부는 회의 주최 측이 조선인 대표로 추천한 박춘금을 친일파육성정책<sup>15)</sup>의 맥락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박춘금의 뒤를 바꾼 것은 내무관료이자 조선에서 총독부 경무국장을 역임했던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였다. 박춘금은 마루야마가 지원했던 ‘상애회’(相愛會, 1921년 도쿄에서 설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훗날 마루야마 등의 힘을 업고 중의원 의원에 오르는 대표적인 ‘친일파’였다.<sup>16)</sup> 박춘금이 전아시아민족회의의 대표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에서 조선총독부의 친일파육성정책과 일본적 범아시아주의 사이에 접점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는 제국의 정치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일본적 범아시아주의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양자의 접점은 보다 선명해진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1934년 보스의 조선방

14) 水野直樹(1994), p. 527.

15) 3·1운동 이후 친일파육성정책에 대해서는 강동진(1979),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1920年代を中心として』(東京大学出版会, pp. 168-228); 森山茂徳(2000), 「日本の朝鮮支配と朝鮮民族主義: 1920年代の「朝鮮自治論」を中心として」, 北村伸一, 御厨貴, 『戦争・復興・発展: 昭和政治史における権力と構想』(東京大学出版会, pp. 1-4)를 참조.

16) 宮地忠彦(2007), 「大正後期の「内地在留朝鮮人」に対する「善導」主義的政策の論理と実態」, 『年報政治学』 58-2, pp. 163-183; 松田利彦(1992), 「丸山鶴吉の朝鮮獨立運動認識: 「文化政治」期の植民地警察官僚」, 『朝鮮民族運動史研究』 8, p. 84.

문이었다. 다음으로 보스와 조선총독부 친일파육성정책의 관계를 그의 인맥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3. 야스오카 마사히로의 조선관과 조선총독부의 친일파육성 정책

그런데 일본에서 인도독립운동을 전개한 보스는 어떻게 조선총독부의 친일파육성정책과 관련을 맺게 되었을까? 그 실마리는 오카와 슈메이, 가사키 요시아키(笠木良明)와 함께 일본의 범아시아주의를 대표하는 야스오카 마사히로(1898-1983)로부터 얻을 수 있다. 보스는 야스오카가 아직 20대 중반일 무렵 그와 만났으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0년간 친하게 지냈다. 보스는 인도독립운동 지지를 표명한 일본인 범아시아주의자들과 폭넓게 교류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망명 직후 영국 관헌의 추적에서 보스를 보호했던 ‘대륙낭인’의 중진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였다. 보스는 은인 도야마를 평생 소중하게 대했다. 다만 심정적 교류나 사상적 영향관계를 고려했을 때 야스오카와의 관계가 훨씬 더 실질적인 것이었다고 보인다. 보스는 자기보다 12살이나 어린 야스오카와 허물없이 지내면서 흥금을 털어놓을 만큼 신뢰했다. 보스의 장모인 소마 곳코(相馬黒光)는 패전 후에 쓴 회상에서 주변의 물이해에서 비롯된 ‘적막감에 견디지 못하던’ 보스에게 야스오카는 속마음을 내보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며 두 사람의 ‘깊은 교류’를 언급하기도 했다.<sup>17)</sup> 이처럼 가까운 사이였던 야스오카가 1930년대 이후 자신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유력관료들을 통해 조선총독부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된 일이 보스를

17) 相馬黒光, 「義母になって親しく見たラス・ビハリ・ボース」, 相馬黒光・相馬安雄(1953), 『アジアのめざめ: 印度志士ビハリ・ボースと日本』, 東西文明社, pp. 314-341, pp. 339-40.

조선으로 이끈 직접적 계기였다.

### 3.1. 야스오카와 동지적 관료 네트워크

야스오카는 도쿄제대 재학시절부터 동양사상분야에 관한 박식한 지식으로 유명했다. 졸업 후 문과성에 들어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한다.<sup>18)</sup> 그 후로 관직이나 의원 같은 공적인 자리를 탐낸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정치의 표면에 등장하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자세가 도리어 영향력을 증대시킨 요인이 된 것처럼 보인다. 야스오카는 권력투쟁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사상적 스승으로 떠받드는 엘리트 국가관료 및 정재계 인물들을 통해 일본과 식민지의 정치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양명학, 노장사상, 유교 등 동양고전에 기반을 둔 그의 사상은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정신론의 성향을 띠면서도, 단순한 자기수양론을 넘어서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야스오카의 사상은 피통치자의 심성과 감정에 대한 이해를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는 일종의 재상론(宰相論)에 가까웠는데, 이 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관료와 정치가들을 매료시켰다. 또한 야스오카의 정치 사상은 명확한 범아시아주의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었다. 대학졸업 후 우익적 국가주의 단체 유존사(猶存社)를 찾아간 그는 오카와 슈메이, 미쓰카와 가메타로(滿川龜太郎), 기타 잇키(北一輝) 등과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범아시아주의자로 활동했다.<sup>19)</sup> 이렇게 인맥을 넓혀가던 와중에 야스오카는 1922년 ‘아세아문화협회’(훗날 ‘동양문화연구소’로 명칭변경)

18) 安岡正篤先生年譜編纂委員會・安岡正篤先生生誕百年記念事業委員會編 (1997), 『安岡正篤先生年譜』(財団法人郷学研修所・安岡正篤記念館), p. 23.

19) 야스오카가 범아시아주의에 심취했던 사실은 「부흥 아세아의 사상적 근거」(復興亜細亜の思想的根拠)(『猶存社小冊』2, 1922년 11월 23일)에서 기타, 미쓰카와, 오카와 등과의 만남을 “살아있는 혼과 접하고 도덕적 응심(雄心)의 고동을 느꼈다”고 언급하는 구절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安岡正篤先生年譜』, p. 24).

의 ‘학생주임’ 자리를 얻게 된다. 보스와 만난 것은 이 무렵으로 추정된다. 금계원(金鷄園)을 소유한 사카이 다다마사(酒井忠正, 화족 정치가)의 저택 안에 세워진 이 단체는 보스를 비롯하여 일본에 머물던 여러 아시아인을 ‘이사’에 추대하는 등, 범아시아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아세아문화협회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고토 후미오(後藤文夫), 이케다 기요시 등, 후일 야스오카를 중심으로 형성될 동지적 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는 내무관료들이 ‘평의원’으로 참가했던 사실이다.<sup>20)</sup> 1927년 1월 위의 두 명에 더해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 고사카 마사야스(香坂昌康), 마쓰모토 마나부(松本学) 등 내무관료들이 포함된 그룹이 발기인이 되어 야스오카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숙, ‘금계학원’(金鷄學院)이 설립되었다. 야스오카와 친했던 보스도 여기에 관여했다. 4월에 열린 개원식에 오카와 등과 함께 참석했던 보스는<sup>21)</sup> ‘아시아의 재생’, ‘인도사정’ 같은 인도독립운동 및 범아시아주의에 관한 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로 활동했다.<sup>22)</sup> 보스의 이와 같은 활동은 금계학원의 범아시아주의적 측면을 중시했던 야스오카의 의향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한편 금계학원은 보스에게 일본의 엘리트 국가관료들과 교류를 맺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보스가 야스오카 계열 내무관료들과 긴밀한 사이였다는 점은, 가령 1923년 그의 일본귀화가 당시 경보국장이었던 고토 후미오(보스와 함께 아세아문화협회 소속)의 재량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sup>23)</sup> 그로부터 수년 후에 설립된 금계학원을 통해 보스는 고토의 후배에 해당하는 내무관료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보스가 위생국장을 역임했던 오시마 다쓰지로(大島辰次郎)를 “위대한 애국

20) 아세아문화협회에 관해서는 亀井俊郎(2017), 『金鷄學院の風景』(明德出版社, pp. 67-76)을 참조.

21) 『安岡正篤先生年譜』, p. 34.

22) 亀井俊郎(2017), p. 60, p. 62.

23) ラスビハリ・ボース(1938), 『インドの叫び』, 三教書院, p. 336.

자, 신뢰하는 친구”로 부르거나,<sup>24)</sup> 마쓰모토 마나부를 “경보국장이지만 이른바 인류국(人類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던 점에서<sup>25)</sup> 그들 사이의 긴밀한 동지적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보스와 조선의 관계를 논하면서 금계학원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금계학원의 주요멤버 가운데 다수가 조선(인)의 통치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내무관료 중에서도 경찰 쪽에 속한 자들의 직무에는 재일조선인의 회유와 융화, 또는 소위 ‘불령선인’ 단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대다수가 조선을 비롯한 식민지에 부임했다. 직원들의 제국 환류는 내무성 인사의 주요한 특징이었고,<sup>26)</sup> 이민족 통치에 있어서도 내지와 식민지가 반드시 명확하게 구별된 것은 아니었다. 가령 아카이케 아쓰시는 내무관료로 근무한 이후 조선총독부로 옮겼으며, 귀국한 후에는 내무성 경시총감이 되어 금계학원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고토 후미오는 내지에 근무하면서 금계학원에 참가한 이후 식민지(대만 총독부)로 자리를 옮겼다. 참고로 아카이케와 고토는 관동대지진과 조선 인학살사건 당시 각각 치안유지의 최고책임자를 맡은 적이 있다. 특히 내무성 경보국장이었던 고토는 ‘불령선인’에 관한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서 사건의 역사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sup>27)</sup> 한편 조선에서 3·1운동 이후 ‘문화통치’를 경험했던 경시총감 아카이케는 효과적인 조선인 통치를 위해서는 친일파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불령선인’ 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sup>28)</sup>

1934년 보스의 조선방문으로 초점을 좁힐 경우, 조선(인) 통치에 관여

24) ラシュ・ビハリ・ボース(1939), 「亡友大島辰次郎君」, 根本善春編, 『大島辰次郎君追想録』, pp. 114-117.

25) 『新亜細亞』, 1934年 1・2月, 9-10号, p. 4.

26) 松田利彦(2010), 「内務官僚と植民地朝鮮」, 『思想』 1029, pp. 100-118.

27) 西村尚登(2017), 「関東大震災下における朝鮮人の帰還」, 『社会科学』 47-1, pp. 33-61, pp. 41-42.

28) 宮地忠彦(2007), p. 175, p. 177.

했던 야스오카 계열 내무관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아세아문화협회 시절부터 활동해온 이케다 기요시를 꼽을 수 있다. 후술하듯이 야스오카는 보스와 만났을 무렵부터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관한 나름의 복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체제의 시작과 함께 1931년 6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 이케다가 부임한 일을 계기로 야스오카의 복안이 현실적 함의를 띠기 시작한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문화통치’를 추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을 위시하여 10년에 걸친 친일과육성정책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이케다는 조선에 부임하자마자 곧장 친일과육성정책의 대상이었던 전(前) 독립운동지도자 최린과 최남선, 조선기독교계의 중진이자 유력지식인이었던 윤치호, 재계의 실력자 한상룡과 박영철 같은 인물들을 다른 조선총독부 요인들과 함께 정기적인 저녁모임(매달 첫째 토요일에 열렸기에 ‘토요회’라 불렸다<sup>29)</sup>)에 초대하는 등 보다 강력한 회유책을 펼쳤다. 또한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벌어지자 조선의 젊은 엘리트이자 총독부 어용신문 『매일신보』의 책임자였던 박석운이 ‘민생단’을 조직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작업을 통해 재만조선인에 대한 통치력 강화를 도모했다.<sup>30)</sup>

금계학원과 조선총독부의 관계는 금계학원을 모태로 1932년 1월에 결성된 국유회(國維會, ~1934년 12월)운동이 경성에 파급되면서 보다 조직적으로 변해간다. 국유회운동은 야스오카의 기획을 토대로 시작되었다. ‘독서회’, ‘수양회’, ‘강연회’, ‘연구회’ 등 각종 문화활동을 통해 야스오카 사상의 전파를 계획하는 한편, 여기에 참가한 관료 및 정치가를 통해 국정의 구체적 개혁을 지향하는 실천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다. ‘일본주의’를 내건 우익적 운동을 추진하면서도 배타적 민족주의나 폭력혁명은 부정하는 비교적 온건한 성격의 단체로서, ‘퇴폐적’ 개인주의와 물질

29) 『尹致昊日記』, 1931年 10月 3日.

30) 水野直樹(1996), 「在滿朝鮮人親日団体民生團について」, 河合和男ほか編, 『論集 朝鮮近現代史: 姜在彦先生古稀紀念論文集』, 明石書店, pp. 330-355.

주의, 공황 이후 계급의식의 고조를 국민주의적 정신수양을 통해 극복할 것을 주장한 보수주의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중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참가하는 엘리트 관료와 정재계 요인 및 지식인의 영향력을 전제로 한 교화운동의 특징이 강했다.<sup>31)</sup>

특히 운동에 조선을 끌어들이던 사실이 그 제국적 성격을 보여준다. 국유회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성립했으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제국적 권익을 확보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다. 과거의 국유회 멤버들이 패전 후 열었던 좌담회에서 야스오카는 사변을 일으킨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구체적인 의의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국내에서 일본정신이 쇠퇴하고 해외에서 일본의 기세가 감소함에 따라 “만주의 지반이 붕괴하면 생명선이 위협하다”는 심각한 위기감이 군, 관료, 재야의 ‘지사’들에게 퍼져있었다. 사변에는 “만주에서 상황을 만회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국내개혁을 실행”하려는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sup>32)</sup> 이처럼 만주사변과 깊은 관련을 지닌 국유회운동은 주변에서 중심을 향하는 구심적(centripetal) 벡터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제국확대의 최전선 만주와 그 중심인 일본을 연결하는 조선의 정치적 안정이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등장한다. 사변이 벌어지기 이전에도 야스오카는 식민지통치에 관해 “조선에서도 배일(排日), 모일(侮日), 즉 일본을 업신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sup>33)</sup> 저항적 민족주의를 억누르면서 조선을 일본제국에 통합해가는 일은 만주국을 토대로 일본사회의 질서를 다시 정리하려한 야스오카 ‘국유’ 사상에서도 시급한 과제였다. 야스오카에게 다행인 것은 국유회를 만들

31) 국유회운동에 관해서는 河島真(1992), 「国維會論: 国維會と新官僚」(『日本史研究』 360, pp. 1-32)를 참조.

32) 吉田茂伝記刊行編輯委員会(1969), 「国維會時代」, 『吉田茂』, pp. 179-200, pp. 181-183.

33) 吉田茂伝記刊行編輯委員会(1969), p. 182.

당시 금계학원의 주요멤버였던 이케다 기요시가 조선총독부의 요직에 있던 일이었다. 국유회는 결성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1932년 6월 경성에 지부를 세웠다. 야스오카도 개최식에 참가하기 위해 조선을 찾았고 최린, 윤치호, 박석윤, 한상룡 등과 교류를 다져나갔다.<sup>34)</sup> 상술한 것처럼 이케다는 총독부에 오자마자 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야스오카의 경성방문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친일파육성정책이 점차 가속화된 것이다.

야스오카가 보스에게 조선방문을 권유한 것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야스오카가 보스를 조선에 데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식민지조선에 대한 야스오카의 생각과 그 범아시아주의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2. 야스오카의 범아시아주의와 이민족 통치론

야스오카가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제창자 가운데 한명이라는 사실은 앞서 지적했는데, 그의 조선관 역시 이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도쿄 제대 졸업 직후인 1922년 5월 잡지 『동양』에 게재한 야스오카의 글 「동양식민정책의 광명」은 양자 사이의 관련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질적 착취를 목표로 삼는 서양 식민지주의의 ‘패도’(覇道)를 범아시아주의적 시점에서 비판하는 야스오카는, 인도독립운동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발흥’을 구미제국에 보이는 “본국민과 토착민 사이의 차별관념” 및 ‘다른 인종’에 대한 “각박한 비윤리적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세계사적 필연으로 정의한다.<sup>35)</sup> 또한 고대부터 동양에 이어져온 이민족 통치형태는 착취나 예속화가 아닌 ‘윤리적 정치’, 곧 ‘왕도’(王道)에 토대를 두고 있는바

34) 朴駿榮(1934), 「安岡先生御滞在鮮抄記」, 『国維』 25, p. 15 및 安岡正篤(1932), 「朝鮮より歸りて」, 『国維』 3, pp. 9-10을 참고. 국유회 경성지부에 대해서는 川島, pp. 5-6을 참조.

35) 安岡正篤(1922), 「東洋植民政策の光明」, 『東洋』 5月号, pp. 43-47.

오늘날에는 일본이 그 정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한다.<sup>36)</sup> 식민지주의의 어두운 부분인 폭력과 차별을 모두 백인의 인종주의 탓으로 돌리는 한편, 백인이 아닌 일본인의 이민족 통치가 지닌 예외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비교논리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었다. 야스오카 사상의 독자성은 동양고전에 보이는 왕도론을 그 근거로 주장하는 점 정도에 불과하다.

위의 글이 흥미로운 점은 야스오카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조선인 명사나 학직(學職)경험자로 구성된 중추원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설립된 조선총독 자문기관이었고, 중추원 참의는 ‘친일파 우대기관’으로 간주되었다.<sup>37)</sup> 야스오카는 조선의 실력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중추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야스오카의 글에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최린을 꼽은 것으로 보인다. 최린을 중추원 참의에 끌어들이는 것은 이케다였는데,<sup>38)</sup> 이는 약 10년 전에 제시되었던 야스오카의 친일파 구상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야스오카의 조선관은 이케다 및 그를 중심으로 한 국유회 경성지부의 활동을 통해 조선총독부 관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가령 조선총독부 경찰관료였던 야기 노부오(八木信雄)는 패전 후 회상록을 통해 “경찰관료의 자세에 대한 마음가짐”을 “야스오카 선생님의 학문적 영향과 이케다 국장의 실천적 영향 아래 만들어나갔다”고 말한다.<sup>39)</sup> 야기는 이케다 등의 초빙으로 조선을 찾은 야스오카가 최린 같은 조선의 거물들과 만나는 자리에 종종 동석해서는 자신도 그들과 새로운

36) 安岡正篤(1922), p. 47.

37) 강동진(1979), p. 217.

38) 高田末吉(1934), 「官僚道の型破り: 池田清」, 『躍進日本を操る人々』, 丸之内出版社, pp. 116-119.

39) 八木信雄(1983), 『日本と韓国 増補再版』, 日韓文化出版社, p. 19.

친분을 쌓아갔다.<sup>40)</sup> 야스오카의 조선관을 야기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야스오카, 최린, 이케다 선생님 등이 주창하고 실천하시던 일한양 민족의 무차별평등, 혼연일체라는 고차원의 통합원리가 완전히 적용된다면, 비록 늦긴 했지만 대다수 한국인의 만족을 얻을 것이고 이윽고 양 민족 사이에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sup>41)</sup>

‘무차별평등’이 ‘한국인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야기의 언급에서 일본의 조선통치를 같은 아시아인의 ‘윤리적’ 협동으로 정의하는 야스오카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야기는 일본인들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조선사회에 불만이 가득하다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현장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던 식민지 경찰관료 야기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배민족에 대한 ‘불만, 불신, 원한, 울분’을 온건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억누르는 일이었다. 야기는 야스오카의 가르침에 따라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철저히 익히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목적은 “총독정치의 방식과 일본인의 태도에 기인하는 각종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경찰권 투입이 필요 없는” 질서를 창출하는 점에 있었다.<sup>42)</sup>

야기의 사례는 야스오카의 통치론이 총독부 관료의 실무로 번역(translate)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무단통치처럼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성을 이해하고 현실에 만족시키는 정책을 통해 독립이나 자치의 요구로 이어질지 모를 감정의 분출을 사전에 예방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입장’이라는 윤리적 이상을 내걸면서도 체제의 입장을 대변하는 실천적 ‘왕도’의 본모습이었다.

---

40) 八木信雄(1983), p. 112, p. 243.

41) 八木信雄(1983), p. 110.

42) 八木信雄(1983), pp. 15-16.

### 3.3. 국유회운동과 친일파육성정책

야스오카는 국유회 경성지부의 초대를 받아 1932년 6월과 1934년 5월에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하고, 야기 등 총독부 관료들에게 통치자로서 일본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설파하는 한편, 조선인 유력자를 회유하는 작업에 직접 참가했다. 귀국 후 『국유』에 기고한 글 「조선에서 돌아와」를 통해 국유회 행사에서 만난 한상룡, 박영철, 최린, 윤치호, 최남선, 박석윤 등 조선 각계의 유력인사들에 대해 “그들 마음속 고뇌는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었다”며 조국을 상실한 엘리트들에게 동정의 뜻을 표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훌륭한 조선과 조선인을 만드는” 일이 일본의 사명이라 주장한다. 항일적인 자치·독립운동에 관해서는 ‘과격’, ‘경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묵살한다.<sup>43)</sup>

이처럼 일본에 저항하는 자들을 폄하하고 문화적 회유를 통해 통치에 협력하는 자들을 양성하려는 야스오카의 조선관은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와 어떻게 연결될까? 1934년 보스와 함께 조선을 다녀온 뒤 『국유』에 실은 「민족의 고뇌: 조선통치의 근본문제에 대해」에서 야스오카는 구미제국의 지배·저항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일본제국론을 전개한다. 일본과 조선은 “신앙, 감정, 사상 등을 근원에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제처럼” 느껴지며, 따라서 일본의 조선통치는 인종의 차이에 입각한 “구주열강 및 그 식민지와는 …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주사변을 통해 “**히틀러 세계의 대세를 극동으로 향하게**” 해준 지금, 일본과 ‘융합대성’(融合大成)함으로써 조선은 그 존재의 세계사적 의의를 완수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독립 혹은 자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저 외국을 모방할 뿐, 일선관계의 천명과 대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비판한다.<sup>44)</sup>

43) 安岡正篤, 「朝鮮より歸りて」, p. 9.

44) 安岡, 「民族の苦悶: 朝鮮統治の根本問題に就いて」, 『国維』, 1934年 6月 1日, p. 1.

위의 문장에 잘 드러나 있듯이 야스오카에게 — 인도의 독립운동을 포함하여 — 다른 제국의 독립운동에 사상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항일정신으로 조직하려는 조선적 범아시아주의는 잘못된 유비(analogy)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인을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참된 뜻에서 멀어지게 하며, 일본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증대시키는 꾀단으로 간주되었다.

조선적 범아시아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야스오카는 ‘일선(日鮮) 고구신앙’을 가지고 “양자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묶으려고 시도”하는 최남선, 또는 “천지와 지리적 운명을 개척하고 신명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최린을 높게 평가한다. 야스오카는 이미 친일적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한때의 독립운동가들이 내세우던 문화론, 즉 최남선의 ‘불함문화론’과 최린의 ‘대동방주의’에 주목하고 있었다. 같은 ‘아시아’에 속하는 일본과 조선 문화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그들의 논의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관점에서 양 민족의 융합을 꾀하던 야스오카의 왕도론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었다.<sup>45)</sup> 이와 같은 문화적 공감의식이 사상의 영역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추진된 국유회운동의 교화실천에도 이어져 있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야스오카는 1934년 5월 경성에 머물면서 최린과 밀접하게 교류했고, 이를 계기로 친일적 문화운동단체 ‘시중회’(時中會, 최린이 이름을 지었다)가 결성되었다.<sup>46)</sup>

최린과 친해진 야스오카는 만주를 거쳐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국유회

45) 최남선과 최린의 역사관, 문화론은 민족주의적 계기를 품고 있으며, 적어도 만주사변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간단히 ‘친일’이라는 용어로 잘라 말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불함문화론’을 분석한 심희찬(2012), 「闖入の歴史学,あるいは破綻する普遍: 崔南善の朝鮮史研究をめぐって」(『日語日文学』, 53)를 참조. 최남선과 최린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친일적 색채를 농후하게 띠게 되는데, 그들이 1932년부터 34년까지 국유회운동에 관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46) 八木信雄(1983), pp. 108-109.

도쿄본부에 그를 초대했다. 국유회가 개최한 성대한 환영회에는 보스의 모습도 보였다. 보스가 상징하는 반영주의 및 인도독립이라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간-제국적 요소는 최린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친일파육성정책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1934년 조선을 방문할 무렵의 보스와 조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 4. 보스의 조선방문과 그 역사적 의미

##### 4.1.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를 구현하는 만주국

보스는 1934년 5월 조선에 건너가 야스오카와 함께 일주일간 경성에 머문 다음 만주를 방문했다. 일본에 돌아온 것은 6월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자신이 주재하는 잡지 『신아세아』에 다음과 같은 조선관을 펴력한다.

만주사변 이래 일본제국의 국방전은 만주로 옮겨갔다. 조선은 만주로 가는 통로이므로 조선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의 급무이리라.<sup>47)</sup>

이 짧은 문장에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우선 보스가 조선인 사이에 퍼져있던 항일, 배일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 다음으로 만주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세력을 확장하던 일본제국을 지지하고, 만주에 인접한 조선통치의 성패가 여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했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문제’에 관한 보스의 인식은 앞장에서 논했던 맹우 야스오카 및 그 영향 하에 있던 이케다, 야기 등 총독부

47) 『新亞細亞』 15-16号, 1934年 7·8月, p. 1.

관료들의 인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조선인의 ‘불만, 불신, 원한, 울분’에 대한 야기의 위기감을 보스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야스오카가 말하는 “과격한 독립운동이나 경박한 자치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선인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만주를 일본 제국의 ‘생명선’으로 여기는 야스오카의 관점 또한 보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보스가 만주국에 관해 식민지조선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방문과 만주국방문이 동시에 계획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보스의 여정과는 그 순서를 달리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만주국방문부터 검토해보자.

1932년 3월 건국된 만주국은 R. M. 프라타프(Raja Mahendra Pratap Singh)와 그의 비서이자 보스와도 친했던 A. M. 나이르(Ayappan Pillai Madhavan Nair) 등, 일본인 범아시아주의자와 연계하고 있던 인도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활약의 무대를 제공해주었다. 보스가 만주국을 방문하기 몇 개월 전 대련에서 아세아민족회의가 열렸는데, 나이르는 현지에서 기획에 관여하고 있었다. 마쓰우라 마사타카(松浦正孝)가 말하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인도 요인>은 당시 만주국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보스가 여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인도 요인>은 보스에 의해 <조선 요인>과 접촉하게 된다.<sup>48)</sup>

1934년 5월 보스가 만주국을 찾은 주목적은 ‘대아세아 건설사(社)’라는 민간단체의 신경지부 개최식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보스는 단체를 창설한 일본인 범아시아주의자 가사기 요시아키의 ‘익찬자(翼贊者)’이자 기관지 『대아세아』의 단골 필자였다.<sup>49)</sup> 가사기 사상의 특징은 간디주의

48) 松浦正孝(2010), 『「大東亜戦争」はなぜ起きたのか: 汎アジア主義の政治経済史』, 名古屋大学出版会.

49) 『대아세아』 12권 12월호(1937) 「찬조원 방명주소」란에서 도쿄 시부야구의 주소와 함께 ‘보스 라스 비하리’의 이름을 볼 수 있다(p. 92). 필자가 확인한바 보스는 이 잡지에 1934년부터 42년까지 적어도 8차례에 걸쳐 글을 실었다.

에 대한 높은 관심에 있었다.<sup>50)</sup> 그는 “인도독립운동은 단순한 정치운동이 아니라 인류정화의 정신운동, 종교운동이다. 만몽독립 전후의 운동역시 이와 동일한 종류의 운동이다”라는 간-제국적 유비의 시점을 가지고 있었다.<sup>51)</sup> 일본의 만주통치를 인도독립운동과 연관 지어 바라보는 가사기와, 일본의 만주통치를 지지하는 인도독립운동가 보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사기는 일찍이 유존사에서 야스오카와 교류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남만주철도(통칭 ‘만철’)의 직원으로 만주에 건너온 이후 범아시아주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면서 만주국 건국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러나 그의 이상주의는 점차 관동군 및 정부주도세력과 마찰을 빚게 되었고, 1932년 7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후로는 1933년 7월 일본에 대아세아건설사(처음에는 ‘대아세아건설협회’)를 세우고, ‘현참사관’(縣參事官)이라 불리던 관료들을 통해 만주통치에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가사기의 영향을 받은 현참사관의 숫자는 적지 않았으며, 그들의 이상주의는 때로 만주국정부의 내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sup>52)</sup>

보스가 만주의 땅을 밟은 1934년 5월은 이와 같은 긴장이 최고도에 달한 시점이었다. 같은 해 2월 만주국에서 열린 아세아민족회의를 통해 맹주 일본을 중심에 두는 아시아민족 단결이 구가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에 만주국 내 중국계 이민자들이 압정에 저항하는 봉기를 일으켰고 군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가사기파 관료 중 일부가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했다.<sup>53)</sup> 만주국 이란현(依蘭縣)에

50) 岡部牧夫(1974), 「笠木良明とその思想的影響: 植民地ファシズム運動の一系譜」, 『歴史評論』 295, pp. 23-37.

51) 笠木良明(1932), 「滿蒙新國家建設と自治指導部の使命」, 『日本及日本人』 246, pp. 214-216.

52) 岡部牧夫(1974), p. 26.

53) 역사연구자 오카베 마키오(岡部牧夫)는 이를 가사기와 그 영향을 받은 일본인 관료들의 이상주의적 경향, 즉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이른바 참사관 기질”의 “가장

서 벌어졌던 이 일명 ‘토룡산(土龍山) 사건’은 보스가 대아세아건설사 신경지부 개최식에 참가했을 당시에도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태였다. 1934년 5월 19일 신경의 양식집 선방정(扇芳亭グリル)에서 열린 개최식에는 15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sup>54)</sup> 당국에 비판적이었던 가사기파 관료들을 감시하기 위한 다수의 사복경찰도 섞여있었다. 보스는 축사를 맡았는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무거웠다고 한다.<sup>55)</sup>

보스는 만주방문 중 안내를 맡았던 니치렌(日連) 계열 승려 가케이 요시아키(筧義章)에게 토룡산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터무니없는 짓이지. 영국이 지배하는 인도에서도 이런 폭정은 없었어. 민족에 대한 형편없는 무단압정이야. ... 그런데 말이야 ... 만주국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는 인도에는 없는 어떤 좋은 것이 있어. 일본에서 온 젊은 현참사관들이 사표를 내면서까지 반대의 뜻을 밝히고, 또 젊은 일본인들이 피압박민족의 비운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아파한다는 사실이지! 이걸 인도에는 없는 일이야! 인도의 영국인 관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거든. 타산을 넘어 권력에 저항하면서까지 인도(人道)를 지키겠다는 정의감이 바로 진정한 일본정신이 아니겠어? 이 민족들이 손을 맞잡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근본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어!<sup>56)</sup>

보스는 가사기파 일본인 관료들을 칭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스가 영령 인도의 영국인 관료들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비교는 반식민지주의운동을 이끌었던 보스가 일본의 식민지주의에

---

전형적인 사례”로 본다. 岡部牧夫(1974).

54) 「筧木良明年譜」, 筧木良明遺芳録刊行會編(1960), 『筧木良明遺芳録』, pp. 485-491.

55) 筧義章(1960), 「英領インドに無かつたもの」, 筧木良明遺芳録刊行會編, pp. 359-362.

56) 筧木良明遺芳録刊行會編(1960), pp. 360-361.

대해서는 긍정적,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 된다. 일본의 통치가 수반하는 노골적인 이민족 차별과 억압을 보스는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일본인이 만주를 통치하는 주체라는 점에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스는 영국의 백인들과는 달리 일본인은 이민족 — 아시아의 여러 민족 — 에게 ‘선정’(善政)을 베풀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넘기지 암시하기도 한다. 그는 군대나 관료가 전면에 나서서 ‘무단’통치를 행하는 일은 가차 없이 비판하지만 — 그것이 범아시아주의의 이상을 근거로 삼는 한에서 — 일본의 통치는 영국적 식민지주의에는 환원되지 않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만주에서 보스가 보여준 언동이 이를 뒷받침한다.

#### 4.2. 도쿄의 국유회운동과 박석윤

만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통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보스의 생각은 전술한 것처럼 야스오카 및 그 영향을 받은 관료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보스가 만주로 가는 도중 조선에 들른 것은 만주사변에 즈음하여 야스오카 등이 시작한 국유회운동의 일환이기도 했다. 조선을 방문하기 전까지 국유회운동에서 보스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소개한다.

야스오카가 금계학원을 기반으로 국유회운동을 시작하자 이전부터 학원과 관계가 있었던 보스도 기관지 『국유』에 기고하는 형태 등으로 운동에 참가한다. 1933년 9월 2일 내무성 경보국장 마쓰모토(1934년 1월 귀족원 의원으로 자리를 옮김)가 ‘제5인터내셔널’을 수립하는데, 보스는 주로 여기에서 활약의 기회를 얻었다. 『마쓰모토 마나부 관계문서』에 수록된 『제5인터내셔널』(이하 『일지』)에 의하면 1934년 4월 24일까지 도쿄의 국유회 회의실 등에서 46번의 회합이 열렸는데, 보스가 적어도 14번

은 출석한 사실이 확인된다.<sup>57)</sup> 대략 3번 중 한번 참가한 셈으로 상당히 높은 출석률이다. 국유회운동은 ‘제3인터내셔널’ 같은 좌익세력의 국제연계에 대항하는 반공우익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으며,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를 그 사상적 지주로 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 아래 제5인터내셔널은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구미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아시아 각국 사람들을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일본에 머물던 민족운동가들을 게스트로 회합에 초빙하거나, 유학생 유치 및 일본인학생의 해외파견을 추진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sup>58)</sup>

아시아의 식민지와 일본을 잇는 상징적 존재였으며 일본어와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했던 보스는 이곳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선인들은 분명 같은 ‘아시아인’이면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반식민지주의는 당연히 일본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 2장에서 본 것처럼 보스는 1926년에 열린 전아시아민족회의에서 조선적 범아시아주의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체험한바 있다. 경성에 지부를 둔 국유회운동에 참가함으로써 보스는 또다시 ‘조선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만주사변을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내건 만주국의 존재를 통해 범아시아주의는 일본제국의 통합이데올로기로 기능했고, 친일적 조선인 중 여기에 감화를 받은 자들이 등장했다. 특히 도쿄의 국유회운동에서 보스와 박석윤이 맺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5인터내셔널이 성립하기 이전, 국유회는 이미 경성지부를 통해 친일과육성정책을 1년 이상 추진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과 조선

57) 「第五インター日誌」(『松本学関係文書』, 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R15-252)를 기반으로 필자가 직접 계산한 숫자다.

58) 제5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粟屋憲太郎·小田部雄次編/解説(1984), 『資料 日本現代史 9: ニ・ニ六事件前後の国民動員』, 大月書店, pp. 536-539를 참조.

인 국유회 관계자들은 본국과 식민지로 이루어진 제국적 공간을 빈번히 왕래했는데 박석윤도 그중 하나였다.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던 박석윤은 총독부 어용신문 『매일신보』의 부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친 일파였다. 만주사변 이후에는 재만조선인정책을 통해 총독부와 더욱 공고한 관계를 만들어나갔다(3장 참조). 국유회가 경성지부를 세운 뒤로는 야스오카와도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sup>59)</sup>

1933년 10월 제5인터내셔널은 박석윤과 보스를 중심으로 범아시아주의를 통한 아시아인의 교류를 촉진하는 단체로서 ‘아세아구락부’라는 것을 만든다. 『일지』에 따르면 10월 13일에 열린 개최회의에는 박석윤과 보스, 그리고 야스오카가 참석했다.<sup>60)</sup> 박석윤이 잠시 경성으로 돌아갈 때까지 두 사람은 11월 1일 제5회 회합, 11월 20일 제11회 회합에 함께 출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1934년 3월 말 도쿄에서 다시 만났으며 4월 상순에도 만났다.<sup>61)</sup> 보스가 조선을 방문한 것은 그해 5월 상순이었는데, 박석윤도 도쿄에서 야스오카와 함께 건너와 먼저 경성에 와있던 보스와 만난 것으로 보인다.<sup>62)</sup> 그들은 1933년 가을 이래 보스가 조선을 방문할 때까지 종종 행동을 함께 했던 것이다.

국유회운동을 통해 맺은 박석윤과 보스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박석윤이 보스와 마찬가지로 만주를 둘러싼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에 동조했기

59) 가령 야스오카는 1932년 조선을 방문했을 때 박석윤과 함께 경주에 갔던 일을 ‘유쾌한 기억’으로 떠올린다. 安岡正篤, 「朝鮮より帰りて」, p. 9.

60) 「第五インター日誌」.

61) 당시 보스와 박석윤의 만남에 일본에 머물고 있던 린센탕(林獻堂, 대만의 정치활동가, 실업가, 문화인)도 참가했다. 3월 30일 이와나미 시게오(岩波茂雄)가 린센탕을 박석윤과 보스에게 소개했고, 세 사람은 그 후로도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린센탕은 도쿄를 떠나기 전인 4월 11일 두 사람을 연회에 초대하기도 했다. 何義麟(2007), 「台湾知識人の苦悩: 東亜共栄協会から大東亜協会台中支部へ」, 松浦正孝編, 『昭和・アジア主義の実像: 帝国日本と台湾・「南洋」・「南支那」』, ミネルヴァ書房, pp. 286-310.

62) 朴駿榮(1934), p. 15.

때문이다. 1932년 11월 만주국의 국제적 승인을 둘러싸고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임시총회가 열렸다. 박석윤은 『매일신보』 부사장을 그만두고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가 이끄는 일본대표단에 합류한다. 국유회 멤버들의 환송을 받으며 유럽에 건너간 박석윤은<sup>63)</sup> 파리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서영해를 만나 운동을 그만두라고 설득했다. 서영해는 박석윤의 친일행위에 대해 “자네는 조선민족이 일본인에게 망한 사실을 지금이라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누우치거라 네 이놈!”이라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박석윤은 서영해에게 ‘도의적 공감’을 느낀다면서도 조선독립론을 부정하고 “자신의 지론인 동양민족의 연합, 조선자치, 만주에서 일본이 펼칠 왕도정치론”을 주장했다.<sup>64)</sup> 만주국의 ‘오족협화’에서 가능성을 본 박석윤은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를 친일행위의 중핵으로 삼고 있었다. 제5인터내셔널에서 박석윤이 보스와 활동을 함께 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유럽에서 돌아온 뒤였다. 보스는 박석윤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인이 단순한 친일파를 넘어서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지지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조선을 방문하기 전에 경험했던 것이다.

### 4.3. 보스의 경성체류

#### 4.3.1. 체류 중의 활동

보스는 야스오카보다 며칠 앞서서 경성에 건너왔다. 5월 7일 오후 5시

63) 『国維』 6, 1932年 11月 1日, p. 16.

64) 澤田節藏, 「日支問題聯盟臨時總會二際シ壽府及巴里ニ於ケル朝鮮人獨立運動者ノ活動情報報告ノ件(1933年 3月 20日), アジア資料研究センター[<https://www.jacar.go.jp/>](레퍼런스코드B02030289700). 이에 관해서는 水野直樹(2014), 「朴錫胤: 植民地期最高の朝鮮人エリート」, 趙景達・原田敬一・村田雄二郎・安田常雄編,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第4巻 戦争と向き合つて: 満洲事変〜日本敗戦』, 有志舎, pp. 236-341, pp. 336-337을 참조.

에 도착하는 기차를 타고 경성역에 내려서 『동아일보』의 취재에 응한 후 조선호텔로 이동했다.<sup>65)</sup> 다음날 8일에는 조선재계의 거물 박영철의 사택에서 윤치호와 함께 식사를 했다.<sup>66)</sup> 5월 9일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10일 저녁 경성에 도착한 야스오카와 만났고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함께 행동했다. 이날은 오후 6시 30분까지 조선신공을 참배했다.<sup>67)</sup>

신사참배를 끝내고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케다 경무국장이 주최한 연회에 야스오카와 함께 주빈으로 참가했는데,<sup>68)</sup> 이 자리에는 약 50명의 ‘내선유지’(內鮮有志)가 어울렸다고 한다.<sup>69)</sup> 다음날 11일 야스오카가 윤치호의 자택을 방문하고 오후 3시 30분부터 조선호텔에서 강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보스도 동행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부터 우가키 총독이 주최한 연회에는 보스와 야스오카가 함께



[그림 3] 1934년 5월 10일 조선신공에서 찍은 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3번째가 보스, 4번째가 야스오카.

\* 출처: 『관계자료』, BS/289.2/B66/[7], 1212816781 025.

65) 『東亞日報』, 1934年 5月 8日, 2면.

66) 『尹致昊日記』, 1934年 5月 8日.

67) 朴駿榮(1934).

68) 『安岡正篤先生年譜』, p. 48.

69) 朴駿榮(1934).

출석했으며,<sup>70)</sup> 밤 9시에 조선일보 사장이 주최한 연회에도 이어서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sup>71)</sup> 12일 야스오카가 경학원 공자묘에 참배하고 경성 남대문소학교에서 강연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는데,<sup>72)</sup> 보스가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후 6시부터 열린 관민합동 환영회에는 야스오카와 함께 주빈으로 참가했다. 대략 150명 정도가 참가한 것으로 보인 이날 환영회가 당시 보스와 야스오카의 조선방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sup>73)</sup> 환영회가 끝나고 야스오카는 밤 11시부터 최린 및 최남선 등 거물들과 만났는데,<sup>74)</sup> 아마 보스도 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날 이후에도 야스오카는 경찰강습소 강연과 경성 국유회 강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sup>75)</sup> 이런 자리들에 보스도 참석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날부터 보스가 개별행동을 취한 것은 확실하다.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의 간부들과 만남을 가졌다.<sup>76)</sup> 14일은 야스오카가 만주로 출발한 날이었는데, 보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조선호텔로 찾아온 윤치호와 만났다.<sup>77)</sup> 그리고 15일 일주일간의 조선방문을 마친 보스는 최린, 윤치호, 한상룡, 박영철 등의 배웅을 받으며 경성역을 출발하여 만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sup>78)</sup>

70) 朴駿榮(1934), 『尹致昊日記』, 1934年 5月 11日.

71) 朴駿榮(1934).

72) 『安岡正篤先生年譜』, p. 48.

73) 『安岡正篤先生年譜』, p. 48; 『尹致昊日記』, 1934年 5月 12日.

74) 『安岡正篤先生年譜』, p. 48.

75) 『安岡正篤先生年譜』, p. 48.

76) 홍양명(1934), 「보-스씨 인상」, 『三千里』 6-8; 『東亞日報』, 1934年 5月 14日, 1면.

77) 『尹致昊日記』, 1934年 5月 14日.

78) 『尹致昊日記』, 1934年 5月 14日.

## 4.3.2. 조선인에게 건넨 보스의 조언

경성에서 다양한 환영회와 연회에 참석하고 개별적인 간담회도 가지는 와중에 보스는 조선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보스에 관한 언급이 여러 번 등장하는 『윤치호일기』(이하 『일기』)는 그 내용을 짐작케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조선총독부 친일파육성정책의 대상이었으며 1934년 5월에 열린 국유회의 각종 주요 이벤트에 빠짐없이 초대받았던 윤치호는 『일기』에 당시의 기록을 남겨두었다. 우선 이케다 경무국장 주최한 연회에 참가했던 5월 10일자 일기를 보자.

범아세아운동은 단지 하나의 이상이나 꿈이 아니다. 이 운동은 동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국가를 일본의 패권 아래 하나로 결집시켜 커다란 종족공동체를 만들려는 정책이다.<sup>79)</sup>

위의 문장을 통해 보스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일본적 범아시아주의 이야기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관민합동 환영회가 열린 12일에는 참석자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후 6시 야스오카 씨와 보스 씨를 위한 환영식이 베풀어졌다. 150명이 넘는 참석자의 대부분은 조선인이었고 국장급 고위 관료들도 몇 명 있었다. 주변들이 간단한 연설을 했다. 인도에서 온 친구는 아시아의 독립을 위해서는 인도독립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sup>80)</sup>

보스는 이미 내지에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인도독립의 의의를 여러 번 설파한 적 있다. 식민지조선에서의 연설이 특별한 것은 총독부의 일본인 고위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일적 경향을 지닌 조선인들을 대

79) 『尹致晷日記』, 1934年 5月 10日.

80) 『尹致晷日記』, 1934年 5月 12日.

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보스가 말하는 ‘아시아의 독립’이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열강 혹은 백인 국가들로부터의 독립을 가리킨다.

윤치호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보스와 만났다. 보스가 경성을 떠나기 전날 윤치호는 조신히텔로 그를 찾아갔고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보스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인들이 원하는 바를 알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강령을 지닌 정치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을 포함해서 기회가 될 만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세요. 정치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조선이 병합되었을 때 이미 순결은 사라진 겁니다.”<sup>81)</sup>

보스가 말하는 ‘순결’은 주권자로서 끝까지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이상적 태도를 가리킨다. 보스는 조선인들은 이미 이를 상실했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제국에 협력하는 일을 통해 공직이나 지위 같은 구체적 보상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조직’의 구체적 함의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독립이나 자치를 요구하는 인도의 국민회의 같은 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저항을 통한 권리의 회복을 포기하고, 일본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조선인들은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스의 조선관을 실용적 대일협력론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치호 역시 일관된 근대화론을 주장했는데, 일본의 지배를 통한 조선의 근대화·문명화를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았고 3·1운동 이후에는 추이를 냉정하게 관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81) 『尹致昊日記』, 1934年 5月 14日.

대일협력에 관한 보스의 이야기는 그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은 보스가 체현하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와 윤치호가 취한 정치적 태도 사이의 관계다. 반영주의의 시점에서 인도 식민지주의의 폐해를 전하는 역할은 보스의 일본활동을 지탱해준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 마침 그는 조선방문을 앞둔 1933년, 인도독립운동 지지자이자 친일적 사상으로 유명한 미국인 J. T. 선더랜드(Jabez Thomas Sunderland)<sup>82)</sup>가 쓴 *India in Bondage: Her Right to Freedom* (1929)을 다나베 무네오(田辺宗夫)와 함께 『질곡의 인도(桎梏の印度)』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번역한 참이었다.<sup>83)</sup> 흥미롭게도 윤치호는 보스가 경성을 떠나고 한 달 정도 지난 6월 18일자 일기를 기점으로 세 번이나 이 책에 대해 언급한다.<sup>84)</sup> 7월 9일자 일기를 보자.

보스 씨의 “질곡의 인도”는 흥미롭고 교훈적이다. 영국이 힌두교도의 신민들을 공평하고 우호적으로 대우할 거라는 나의 예전의 믿음은 보스 씨의 이 책에 의해 모두 환상이 되었다. 영국이 인도에서 다른 정복민들이 자신들의 종속지에서 행한 것보다 더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놀랍다.<sup>85)</sup>

여기서 윤치호는 번역자인 보스를 저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의 식민지주의에 대한 보스와 선더랜드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을

---

82) 선더랜드에 관해서는 Michael Brian Pass (2018), “Organizations to Bridge the Pacific: the Japan Society, the Carnegie Endowment, and Japanese-American Cultural Internationalism, 1912-1931”, A Master’s Dissertation Submitted to Saint Mary’s University, pp. 34-35를 참조.

83) ஜே·테이·산더랜드(1933), 라스·비ハリ·보스, 田辺宗夫訳, 『桎梏の印度』, 平凡社; J. T. Sunderland (1929), *India in Bondage: Her Right to Freedom*, New York: L. Copeland.

84) 『尹致昊日記』, 1934年 6月 18日, 6月 24日, 7月 9日.

85) 『尹致昊日記』, 7月 9日.

뿐더러 윤치호에게 끼친 보스의 영향력을 고찰하는 경우 이 착각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윤치호가 보스를 매개로 반영주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

조선의 반영주의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가 제국정치에 끼친 영향력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 중 하나다.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고 영국과 일본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빠지는 가운데, 일본제국에서는 먼저 조선에서 ‘반영운동’이 일어났고 — 실은 조선총독부가 배후에서 관여한 관제 데모였지만 — 이것이 내지로 파급되었다. 이때 조선인 ‘반영’단체의 명예회장을 맡아본 것이 다름 아닌 윤치호였다.<sup>86)</sup> 한편 일본에서 전개된 운동의 경우 보스가 인도독립운동가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했다.<sup>87)</sup> 물론 1934년 단계에서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는 아직 일본제국의 대외정책을 좌우할 만큼의 힘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시 윤치호가 반영주의적 견해에 기울어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보스에게 받은 영향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윤치호의 예를 통해 조선총독부 친일파육성정책의 대상이었던 인물들과 보스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보스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던 윤치호 같은 인물들에게 대일협력을 주장하는 한편,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일본중심의 반영적 범아시아주의를 제시했다.

보스의 만주행을 경성역에서 배웅했던 조선인 중에는 윤치호를 포함하여 야스오카가 중요한 회유대상으로 여겼던 최린도 있었다. 보스와 최린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다음 달 도쿄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앞장에서 논한 것처럼 1934년 5월 경성

86) 松浦正孝(2010), p. 750, pp. 754-756.

87) 『관계자료』에는 1939년 6월 2일 고베에서 열린 ‘반영대회’에서 많은 수의 청중을 상대로 연설을 행하는 보스의 사진이 보관되어있다. 「昭和14年6月2日 反英大会 於神戸海員会館主催東亞親交会委員増田」, 『관계자료』, BS/289.2/B66/[7], 061.

에서 국유회 멤버들과 친해진 최린은 도쿄본부의 초대를 받아 6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다. 보스가 최린과 만난 것은 6월 23일 도쿄부지사회관에서 열린 환영회, 또는 그 전후일 것으로 생각된다.

보스의 처남이자 어머니 소마 곳코와 함께 보스의 평전을 썼던 소마 야스오(相馬安雄)에 의하면 “최 씨에게 조선독립운동의 정세를 들은 보스는 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sup>88)</sup> 야스오의 문장만 보면 마치 최린이 당시에도 현역 독립운동가였던 것처럼 생각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최린은 전(前) 독립운동가이고 3·1운동에서 투옥과 석방을 겪은 이후로는 조선총독부 친일과육성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여겨진 인물이었다.<sup>89)</sup> 보스가 최린에게 전했다는 아래 조언에서 그가 조선독립운동을 ‘오류’로 규정하는 논리를 알 수 있다.



[그림 4] (좌) 1934년 6월 23일 ‘최린 선생 환영기념사진’, 도쿄부지사회관에서. 앞줄 오른쪽부터 김은연, 야스오카, 바바 에이치(馬場鐵一), 최린, 세키야 데자부로(関屋貞三郎), 에구치 사다에(江口定條), 오시마 다쓰지로, 도키 아키라(土岐章). 뒷줄 오른쪽부터 마치다 다쓰지로(町田辰次郎), 조기간, 보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김대우, 기사키 규노스케(木佐貫牛之助), 하야시 덴지(林傳次), 고사카 마사야스. (우) 사진은 최린의 얼굴을 확대한 것.

\* 출처: 『관계자료』, BS/289.2/B66/[1], 1212816722 013.

88) 相馬安雄, 「日本における悲境時代」, 相馬黒光・相馬安雄(1953), pp. 44-59.

89) 森山茂徳(2000), pp. 31-34.

인도의 독립운동과 조선의 독립운동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인도는 백인의 착취와 압정에 고통받으며 늘려왔다. 인도는 백인종을 물리치고 독립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의 상황은 다르다. 백인종의 착취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을 총괄하고 지키는 것이다. 만약 조선이 일본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그 순간 백인의 침략이 시작될 것이며 조선은 곧장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일본 배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다. 조선은 먼저 자신의 손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아시아의 각 민족은 하나가 되어 백인의 세력을 몰아내고 아시아를 부흥시켜야 한다.<sup>90)</sup>

“일본 배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이라는 주장은 윤치호에게 민족독립의 꿈을 버리라며 전했던 조언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더옥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를 논하는 점이 최린에게 한 조언의 특징이다. 무엇보다 보스가 영국의 인도통치를 예로 들어가며 일본의 조선통치를 옹호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스는 ‘백인’이라는 단어를 비교논리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착취’, ‘압정’, ‘침략’ 같은 <악정>(惡政)은 백인이 다른 인종을 지배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식민지주의로 인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백인의 인종차별로 환원시키는 보스의 논리는 백인이 아닌 일본의 조선통치가 인종주의에 빠지는 일 없이 <선정>을 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된다. 야스오카가 그러했듯이, 보스에게 일본의 통치란 이른바 <식민지주의>가 아니었다. 보스는 일본의 범아시아주의자가 인도독립을 지원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여기에 조선을 수호하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보스에게 일본의 조선통치는 식민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식민지주의적인 것이었다.

경성에서 열린 국유회 관련 행사에서 보스가 인도독립의 의의를 설파했던 일은 앞서 소개했다. 최린에게 건넨 조언은 인도독립운동과 조선독립운동의 관계에 대해 보스가 가졌던 생각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준다. 보

90) 相馬安雄(1953), 「日本における悲境時代」, 相馬黒光・相馬安雄, pp. 54-55.

스의 논리대로라면 인도인과 같이 ‘아시아의 각 민족’ 중 하나에 속하는 조선인은 영국을 비롯한 구미제국 식민지주의의 잠재적 희생자가 된다. 그러한 식민지주의에서 조선을 지켜주는 것이 일본이라면 조선의 역사적 사명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백인의 패권에 저항하는 일이 될 터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행하는 방법은 ‘잘못’이 된다. 보스가 “인도의 독립운동과 조선의 독립운동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속뜻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보스의 비교논리는 인도독립을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보다 우선시하는 자민족중심주의를 보여준다. 앞서 논했던 것처럼 보스는 일본인 통치자들의 반영주적 경향을 높이 평가하고, 범아시아주의를 구현하는 새로운 국가 만주국의 안정적 발전이 인도의 독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식민지조선의 정치적 안정이 필수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보스에게 일본제국을 내부에서 흔드는 조선인의 독립운동은 — 단순한 사상적 ‘오류’가 아니라 — 인도독립운동의 구체적 장애물로 인식되었다.<sup>91)</sup>

91) 이 글에서는 보스의 ‘친일’적 입장과 그 연장선에 있는 ‘친일파’ 조선인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의 사상과 행동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중심주의적 측면까지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보스의 범아시아주의는 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간-제국적 궤적을 그려왔지만, 이것이 민족의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 포괄적 반식민지주의 연대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은 그의 조선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보스는 단지 민족 수준의 인도중심주의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배타주의적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보스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인도의 힌두교 지상주의단체 ‘민족의용단’(Rashtriya Swayamsewak Sangh, RSS)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현재 이 점에 관한 다른 논문을 준비 중이다. 보스와 민족의용단에 대해서는 Marzia Casolari (2000), ‘Hindutva’s Foreign Tie-up in the 1930s: Archival Eviden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5 (4), pp. 218-228.

#### 4.3.3. 보스 조선방문의 구조와 특질

상술한 보스의 언동을 염두에 두면서 조선방문의 구조와 특질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자.

보스가 조선을 방문한 직접적 계기는 야스오카의 권유였다. 야스오카는 1953년에 쓴 보스 추도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다행히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입장이었고 학문 및 시문을 통해 조선의 나이든 분들과도 교유관계가 있었기에 곧잘 조선에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보스 군 이야기가 나왔다. 인도독립운동의 지사로서 일본에 망명하여 일본인 맹우도 많았던 그 드라마틱한 인생 역정이 조선인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나와 함께 조선에 놀러오길 바란다기에 결국 약속을 잡았다.<sup>92)</sup>

위 인용문은 야스오카가 1932년 6월 조선을 방문했을 때 보스의 존재가 화제가 되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조선인들은 이미 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보스와 만난 적이 있던 『조선일보』 해외특파원 홍양명의 말에 따르면 보스는 “도쿄와 조선에 널리 알려진 망명 인도인이라는 점에서 프라타프 씨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었다.<sup>93)</sup> 만주 사변 후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최린, 최남선, 박석윤 등이 보스에게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야스오카가 그들과 보스의 만남을 주선한 것 같다.

야스오카는 보스 추도문에서 1934년의 경성을 향수에 젖은 말투로 회상한다.

---

92) 安岡正篤(1953), 「ボース・ラス・ビハリ氏を偲ぶ」, 相馬黒光・相馬安雄, p. 293.

93) 홍양명(1934).

매일 밤낮으로 매우 성대한 환대를 일본과 조선 양쪽에서 받았다. 최린 씨나 윤치호 씨와도 완전히 의기투합했다. 당시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만큼 일본과 조선민족이 정신적으로 투합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자주 말한다. (중략) 당시 보스 군의 정열과 웅변은 조선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격을 주었다. 마음만 맞는다면 아시아의 대동단결도 꿈은 아닐 거라고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sup>94)</sup>

추도문의 형식상 보스의 ‘공적’을 최대한으로 칭송하면서 마치 그가 조선을 찾은 일에 의해 처음으로 ‘일본과 조선민족이 정신적으로 투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다만 야스오카는 보스와 함께하지 않았던 1932년의 조선방문 이후에도 일본과 조선의 ‘투합’을 찬미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최린, 윤치호, 최남선 같은 거물들과 만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야스오카는 “(총독부) 각 내무국이나 문무(문관과 무관) 사이에 미증유의 협화적 미풍이 실현되어 내선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우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실로 인간인 것이다”고 적는다.<sup>95)</sup> 야스오카가 보스를 조선에 데리고 간 것은 자신의 조선방문이 친일파육성정책에 좋은 효과를 주었던 점에 자극을 받아 이를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보스를 통해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인도 요인>을 조선의 맥락에 도입하기 위해서였다. “보스 군의 정열과 웅변”을 “아시아의 대동단결”에 접맥시키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반영주의와 인도독립운동지원을 조선에 소개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친일파육성정책에 세계사적 네트워크를 부여하는 것이 야스오카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조선에는 일본적인 것과 대립하는 조선적 범아시아주의가 존재했으며, 조선총독부는 인도독립운동이 항일의 모델이 되거나 자극의 계기가 되는 일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94) 安岡正篤(1953), 「ボース・ラス・ビハリ氏を偲ぶ」, 相馬黒光・相馬安雄, p. 293.

95) 安岡正篤, 「朝鮮より歸りて」, p. 9.

총독부의 일본인 관료들 중에는 조선에 머물면서 인도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던 보스의 움직임이 조선인에게 독립의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 점은 “보스 씨가 말하길 어젯밤 연회에 참석한 일본인 중 몇 사람은 완전한 독립국을 달성하려는 인도인들의 노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편해했다”는 윤치호일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sup>96)</sup> 물론 일본인 통치자 편에서 있던 보스는 조선의 항일의식을 자극하려는 의도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적 범아시아주의와 인도독립운동의 추이를 계속 감시했던 조선총독부의 일부 관료들은 — **그 사상적 내용과는 관계없이** — 보스의 언행이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고무할지도 모른다고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는 결국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중반 본격화하는 조선총독부의 언론통제 및 그 집요한 검열은 민족의식을 고양하려는 출판물들의 정열을 꺾어내는 일에 대체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례만 보아도 1920년대에는 20건에서 많게는 50건 이상 나타나던 연간 처분건수는 30년대에 들어설 무렵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32년부터는 거의 매년 한자리수에 머물렀다. 더 이상의 강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총독부의 통제정책은 위력을 발휘했다.<sup>97)</sup> 이전까지 열심히 소개되었던 인도 및 ‘약소민족’의 반식민지주의운동, 혹은 간디와 타고르에 관한 정보도 보도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검거건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sup>98)</sup> ‘인도독립’을 ‘조선독립’에 연결시키는 조선적 범아시아주의는 계속된 탄압으로 그 기운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태는 그 대극에 있던 일본적 범아시아주의가 조

96) 『尹致昊日記』, 1934年 5月 14日.

97) Michael Robinson (1984), “Colonial Publication Policy and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in (eds.) R. H. Myers and M. R. Peattie,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985-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27.

98) 鄭晋錫, 「極秘朝鮮總督府言論彈壓資料 解題: 彈壓と統制の秘密資料整理」, 鄭晋錫編, 『極秘朝鮮總督府言論彈壓資料叢書<1>』,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p. 9.

선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를 내건 국유회가 조선총독부 내부에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이전까지 치안당국의 감시를 받았던 인도독립운동의 간-제국적 성격이 반대로 조선통치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총독부 일본인 관료의 상층부 대다수가 국유회운동에 참가하고 있던 상황은 보스에게 행동의 영역을 넓혀주었다. 보스의 조선방문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이 조선인의 ‘항일’을 단속하는 책임자였던 경무국장 이케다 기요시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보스의 조선방문을 처음 생각한 것은 야스오카였지만, 이것이 총독 주최 환영회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총독부 요직에 올라있던 이케다 덕택이었다. 치안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케다는 분명히 인도독립운동이 항일의 논리로 해석될 위험도 고려했을 것이다. 조선에 부임한 이래 친일파육성정책에서 성과를 올리긴 했으나, 그 영향권 밖에는 여전히 항일적인 지식인들과 일반민중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케다는 인도독립운동가인 보스를 굳이 초대하여 활동의 장을 제공했다. 이케다가 국유회운동과 보스에 기대한 것은 일부 조선인을 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지던 친일파육성정책에 협조하는 일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린 및 윤치호 등을 더 강하게 회유하는 작업이었다. 1934년에 보스가 만난 조선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친일적 경향을 가진 자들, 그중에서도 야스오카가 범아시아주의의 관점에서 특히 중시하던 유력자 그룹에 한정되었다. 보스와 조선인의 교류는 — 일부 저널리스트를 제외하면 — 야스오카와 총독부의 필터를 벗어나지 못했고, 국유회의 활동범위 안에 갇힌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 점은 보스의 언동을 구조적으로 규정했다. 보스에게 기대된 역할은 조선사회 전체가 아니라 친일파육성정책의 표적이 된 일부 유력 조선인들을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로 끌어들이는 일이었다. 보스 역시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2장에서 보았듯이 보스는 1926년 시점에 이미 자신이

추진하던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와 조선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경성에 머물면서 보스가 보도매체에 조선관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조선사회 전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긴장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경성에 도착한 보스와 곧바로 인터뷰를 가진 『동아일보』는 그가 “매우 겸손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림 5] 보스의 조선방문을 알리는 『동아일보』 기사.

\* 출처: 1934년 5월 8일, 2면.

조선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감상은 말할 것이 없다. 지금부터 조선을 공부할 예정이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sup>99)</sup>

보스는 자신의 조선관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보도 자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스의 소극적이고 모호한 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항일 운동에 자극을 줄지 모르는 인도독립

운동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조선총독부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의 친일적 입장이 항일 ‘민족파’로 알려진 『동아일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일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사회 일반으로부터 차단된 친일파육성정책의 공간에서 윤치호나 최린을 만나는 경우에는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입장에서 명확하고도 강한 어투로 조선통치를 논한다. 보스는 『동아일보』 인터뷰와는 반대로 식민지조선에 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자각하고 있었다. 보스는 조선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99) 『東亞日報』, 1934年 5月 8日, 2면.

항일을 ‘조선문제’로 인식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친일적 조선인의 존재에 협동의 가능성을 걸고 있었다.

## 5. 나가며

반식민지주의를 선두에서 이끌었던 보스는 어쩌서 일본제국의 피식민자였던 조선인의 반식민지주의는 부정할 것일까? 이 글에서는 보스의 <모순>을 역사학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통해 식민지주의와 그 저항의 <간-제국>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선 큰 틀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독립운동이 동시대 일본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간-제국적 영향이 복수의 궤적을 그렸음을 지적했다. 인도독립운동에 관한 정보와 사상은 지배국 일본과 피지배국 조선 양쪽에 도달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일본과 조선의 범아시아주의는 인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을 보였는데, 그 핵심에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배/피지배라는 양국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이 두 범아시아주의는 결코 대등한 관계에 놓일 수 없었다. 조선적 범아시아주의는 지속적인 사상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1930년대에 들어설 무렵에는 언론에서 이를 표현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와 반대로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는 제국통합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기 시작했고, 특히 <인도 요인>을 통해 그 중요성을 증대시켜나갔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는 또한 그 자체로 영국과의 간-제국적 관계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1931년에 벌어진 만주사변은 아시아를 둘러싼 영국과 일본 두 제국의 긴장상태를 표면화하는 사태였고,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의 주창자들은 만주국에 관한 일본의 새로운 통치형태를 영국의 인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당화했다. 인도독립운동에 관한 그들의 사유는 일본제국

의 이민족통치 긍정과 표리일체를 이루었고, 만주국의 가사기파 관료에 대한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보스 역시 이러한 사유를 공유했다.

아시아를 둘러싼 당시 일본과 영국의 이와 같은 간-제국적 관계성을 염두에 두어야 1934년 보스가 조선의 반식민지주의에 대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를 알 수 있다. 친일적이면서도 강한 반영의식의 소유자였던 보스는 <식민지주의>를 영국 ‘백인’의 지배로 정의내리고, ‘백인’이 아닌 일본의 조선통치를 그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일본의 범아시아주의자들이 인도독립운동을 지원한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을 반식민지주의 편에 위치시킨다. 나아가 조선을 백인지배의 잠재적 희생자로 간주함으로써 현실의 통치자인 일본을 그 ‘보호자’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은 일본에 협력하는 일을 통해 반식민지주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논한다. 만약 항일이 아닌 친일이야말로 <저항>을 의미한다는 논리가 성립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인도독립운동가의 조선독립운동 부정은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로 이해될 것이다. 물론 전 아시아민족회의를 통해 조선적 범아시아주의 같은 정반대의 견해를 몸소 체험했던 보스는 자신의 논리가 많은 조선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와중에 맹우 야스오카의 일본적 범아시아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유력한 조선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친일파육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총독부가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스의 주저를 상쇄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조선방문을 전후하여 그가 보여준 조선관은 야스오카의 조선관과 기본적으로 같았는데, 이는 두 사람 사이의 동지적 관계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같은 일본적 범아시아주의라도 그것이 인도의 독립운동가를 통해 발화되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되었다. 1934년 5월 보스가 조선을 방문한 역사적 의미는 이 점에 있다.

## 참고문헌

### 【자 료】

澤田節藏, 「日支問題聯盟臨時總會二際シ壽府及巴里ニ於ケル朝鮮人獨立運動者ノ活動情報報告ノ件」(1933年 3月 20日) 아시아歷史研究センター  
[<https://www.jacar.go.jp/>](<sup>1</sup>리ファレン스코드B02030289700).

朝鮮總督府警務局図書課(1928), 『朝鮮出版警察月報』 2号.

朝鮮總督府警務局図書課(1930), 『朝鮮出版警察月報』 17号.

『松本学関係文書』(国立国会図書館憲政資料室所蔵) R15-252.

『ラース・ビハーリー・ボース関係資料』(大東文化大学60周年記念図書館所蔵).

『尹致昊日記』(「韓国歴史情報統合システム」(<http://www.koreanhistory.or.kr>で閲覧可)).

大川周明(1962), 『大川周明全集 第2巻』, 大川周明全集刊行会.

笠木良明遺芳録刊行会編(1960), 『笠木良明遺芳録』, 笠木良明遺芳録刊行会.

高田末吉(1934), 『躍進日本を操る人々』, 丸之内出版社.

根本善春編(1939) 『大島辰次郎君追想録』, 根本善春.

ジェー・テイ・サンダーランド(ラス・ビハリ・ボース, 田辺宗夫訳)(1933), 『桎梏の印度』, 平凡社.

相馬黒光・相馬安雄(1953), 『アジアのめざめ: 印度志士ビハリ・ボースと日本』, 東西文明社.

ラスビハリ・ボース(1938), 『インドの叫び』, 三教書院.

八木信雄(1983), 『日本と韓国 増補再版』, 日韓文化出版社.

安岡正篤先生年譜編纂委員会・安岡正篤先生生誕百年記念事業委員会編(1997), 『安岡正篤先生年譜』, 財団法人 郷学研修所・安岡正篤記念館.

『吉田茂』, 吉田茂伝記刊行編輯委員会, 1969.

『国維』.  
『三千里』.  
『新亞細亞』.  
『大亞細亞』.  
『中外商業新報』.  
『東洋』.  
『日本及日本人』.

【논 지】

- 栗屋憲太郎・小田部雄次編 / 解説(1984), 『資料 日本現代史 9(ニ・ニ六事件 前後の国民動員)』, 大月書店.
- 岡部牧夫1974, 「笠木良明とその思想的影響 — 植民地ファシズム運動の一系譜 —」, 『歴史評論』 295, pp. 23-37.
- 何義麟(2007), 「台湾知識人の苦悩 — 東亜共栄協会から大東亜協会台中支部へ」 松浦正孝編 『昭和・アジア主義の実像 — 帝国日本と台湾・南洋』・「南支那」 —, ミネルヴァ書房, pp. 286-310.
- 河島真(1992) 「国維会論 — 国維会と新官僚」, 『日本史研究』 第360号, pp. 1-32.
- 亀井俊郎(2017), 『金鷄学院の風景』, 明德出版社.
- 姜東鎮(1979)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 1920年代を中心として』, 東京大学出版会.
- 鄭晋錫(2007), 「極秘朝鮮總督府言論弾圧資料 解題: 弾圧と統制の秘密資料整理」 鄭晋錫編 『極秘朝鮮總督府言論弾圧資料叢書<1>』, 韓国教会史文献研究院, pp. 1-39.
- 西村尚登(2017), 「関東大震災下における朝鮮人の帰還」, 『社会科学』 第47巻 1号, pp. 33-61.
- 沈熙燦(2012) 「闖入の歴史学, あるいは破綻する普遍 — 崔南善の朝鮮史研究をめぐる」, 『日語日文学』 第53巻, pp. 369-386.
- 宮地忠彦(2007) 「大正後期の「内地在留朝鮮人」に対する「善導」主義的政策の論理と実態」, 『年報政治学』 第58巻 2号, pp. 163-183.
- 松浦正孝(2010) 『「大東亜戦争」, はなぜ起きたのか: 汎アジア主義の政治経済史』, 名古屋大学出版会.

- 松田利彦(1992), 「丸山鶴吉の朝鮮獨立運動認識 — 「文化政治」期の植民地警察官僚 —」, 『朝鮮民族運動史研究』 8, pp. 65-106.
- 松田利彦(2010), 「内務官僚と植民地朝鮮」, 『思想』 第1029号, pp. 100-118.
- 水谷智(2018), 「「間-帝国史 trans-imperial history」論」日本植民地研究会編 『日本植民地研究の論点』, 岩波書店, pp. 218-227.
- 水野直樹(1994) 「1920年代日本・朝鮮・中国におけるアジア認識の一断面 — アジア民族会議をめぐる三国の論調 —」 古屋哲夫編 『近代日本のアジア認識』,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pp. 509-548.
- 水野直樹(1996), 「在満朝鮮人親日団体民生団について」河合和男ほか編 『論集 朝鮮近現代史 — 姜在彦先生古稀紀念論文集』, 明石書店, pp. 330-355.
- 水野直樹(2014), 「朴錫胤 — 植民地期最高の朝鮮人エリート」趙景達・原田敬一・村田雄二郎・安田 常雄編 『講座 東アジアの知識人 第4巻 戦争と向き合って — 満洲事変〜日本敗戦』, 有志舎, pp. 236-341.
- 森山茂徳(2000), 「日本の朝鮮支配と朝鮮民族主義 — 1920年代の「朝鮮自治論」を中心として」北村伸一・御厨貴 『戦争・復興・発展 — 昭和政治史における権力と構想』, 東京大学出版会.
- Casolari, Marzia (2000), “Hindutva’s Foreign Tie-up in the 1930s: Archival Evidenc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35 (4), pp. 218-228.
- Mizutani, Satoshi (2015), “Anti-Colonialism and the Contested Politics of Comparison: Rabindranath Tagore, Rash Behari Bose and Japanese colonialism in Korea in the inter-war period”, *Journal of Colonialism and Colonial History*, 16 (1).
- Pass, Michael Brian (2018), “Organizations to Bridge the Pacific: the Japan Society, the Carnegie Endowment, and Japanese-American Cultural Internationalism, 1912-1931”, a Master’s Dissertation Submitted to Saint Mary’s University, July 2018, pp. 34-35.
- Robinson, Michael (1984), “Colonial Publication Policy and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in (eds.) R. H. Myers and M. R. Peattie, *The Japanese Colonial Empire, 1885-1945*,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312-343.
- Robinson, Michael (2007), *Korea’s Twentieth-Century Odyssey*, University of Hawaii Press.

102 인문논총 제76권 제2호 (2019.05.31)

원고 접수일: 2019년 5월 5일

심사 완료일: 2019년 5월 8일

계재 확정일: 2019년 5월 9일

ABSTRACT

---

R. B. Bose as an Indian Independence Activist and His  
Relationship to Korea:

Rethinking Anti-Coloni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mperial’

Mizutani, Satoshi\*

While in India under British rule, R. B. Bose (1886-1945) — a militant independence activist — was involved in an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Governor-General, forcing him into migrating to Japan, where he would continue his anti-colonial activities in exile. In May 1934, Bose visited Seoul, the capital of Korea, a nation which was under Japanese rule. During his one-week stay there, he was greeted day after day by high-ranking Japanese officials of the colonial state and was found to try and persuade those Koreans with whom he interacted into cooperating with the Japanese rulers. Why was it the case that someone who was in the very forefront of anti-colonial struggle in one empire ended up discouraging it in another? This is nothing short of a contradiction. Contemplating this contradiction, the paper argues, will help us consider what both colonialism and anti-colonialism were in a new light. Conventional historical studies of colonialism have mostly revolved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ruled in one given empire. But such a framework would fail to help

---

\* Professor, Faculty of Global and Regional Studies, Doshisha University

us see why and how R. B. Bose did what did in Seoul that year. What is required as an alternative is a ‘trans-imperial’ perspective — a perspective which allows the histories of both colonialism and anti-colonialism to be situated within th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empires in question. Through elucidating the reasons behind Bose’s contradictory stance to Korean’s struggle against Japan, this essay will rethink the meanings of anti-colonial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rans-imperial.